

##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조재현



지난 설날 전이었다. 이순재 선생님께서 주연한 강풀 만화 원작 '그대를 사랑합니다' 시사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원작 만화도 봤고 연극으로 공연된 것도 봤고, 어쩜 솔직한 심정은 존경하는 이순재 선생님 주연 영화이기에 꼭 가서 봐야겠다는 의무감도 없진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원작과 상관없이 너무 쉽게 영화에 빠져버렸다. 어느 시사회도 이런 광경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은 관계자 및 영화인들이 보는 시사회에 이토록 많이 웃고 많이 흐느끼는 각색 반응은 없었던 것 같다. 영화가 끝나고 마침 영화투자 배급사 대표를 만났다. 대표는 본인도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3번이나 시사회를 보고 또 놀고 울었음에도 흥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이유인즉 제작비도 평균 영화 제작비의 반 정도(10억 원)이기에 흥보 마케팅 비를 여태 상영영화 만큼 집행하기도 힘들고, 잘나가는 젊은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무엇보다 노인영화라 알고 있어 주관객층이 10~20대(젊은 관객)인 영화시장에서의 승부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사회장을 나오는데 이순재 선생님이 계신다. "영화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앞으로 멜로 계속 하셔야겠어요"라고 말하고 포옹을 했다.

영화 속의 이순재 선생님은 어떤 젊은 멜로배우 못지 않게 사랑을 하고 있었고

서 관객은 이미 100만을 넘어섰다. 노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랑 영화, 그것도 유쾌하고 감동적인 사랑 영화라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평일 낮 시간에는 다른 영화에 비해 2배 가까운 관객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나를 비롯한 중장년은 10~20년 후에 노년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정보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다. 하지만 40~50대 장년층은 그렇지 않다. 물론 여전히 힘든 직장생활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역할을 하기도 벅찬 것이 대한민국 대다수 가장들의 현실일 것이다.

## “배우 이순재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관객들로 하여금 70이 훨씬 넘은 나이를 모두가 잊고 그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배우로만 느껴졌던 것이다. 송재호 선생님도, 윤여정 선생님도, 김수미 선생님도….

영화는 개봉하고 첫 주 스코어는 전체 영화 6위로 출발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다. 둘째 주는 여지없이 10위로 밀려나 버렸고 이 상태라면 보통 그 다음 주엔 영화를 보고 싶어도 상영관이 없어 못 보는 상황이 그려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3주째 4위로 올라서고 지금은 한국영화 1위를 기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문화를 찾지 않으면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당사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의 관객 추이를 보면 '그래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 영화에 열연한 노래우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출연진 중 가장 연세가 많은 이순재 선생님을 통해 느끼는 게 많다.

현준하는 배우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령 선배님임에도 불구하고 밤샘 활동에도 전혀 피곤함을 내색하지 않으나마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과 후학들을 위한 대학 강의도 나가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또한 계획하지 않으신다.

거기엔 당신이 타고난 튼튼한 체력만이 이유가 아니란 것을 우리 후배들은 다 안다. 지금도 암기력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우리 역대 왕 이름을 거꾸로 반복해서 암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한다.

이런 고령화시대에 생각과 마음이 젊은이보다 더 젊은 이순재라는 훌륭한 배우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거기에 노인들만의 영화가 흥행까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영화들, 노인 중장년층을 위한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일단 파란불은 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듦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야겠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안보셨으면 꼭 가서 보시라고… 그리고 속스럽지만 지금까지 건강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꼭 말씀 드려야겠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이사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강채미



꽃샘 추위가 기습을 끼리고 있지만 곳곳에 불기운이 완연하다. 봄은 꽃놀이 등으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심한 일교차로 인해 인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봄은 또한 환절기�이기 때문에 더욱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면 몸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 능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또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새로운 기상조건에 적응

작하면서 밀폐된 공간에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기게 된다.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자주 환기시키고 휴식의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잠면지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인 소파나 가구는 가능한 한 치우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섬유로 된 담요나 옷은 섬세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내에 있는 화분은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비염과 출농증은 성장장애 원

## 기고

강왕기



말바지 꽂았습니다. 이 주위가 지난 고나면 이 산, 저 산. 그리고 이곳저곳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것이다. 노란 개나리나 인사를 건넬 것이고 하얀 목련도 순백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대기의 공기는 한껏 부드러워지며 나무들은 싱그런 신록의 촉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산새들의 저저기도 경쾌해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자연의 품으로 파고들 것이다. 애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이의 손을 잡고 '자연마실'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동일

작으면서 밀폐된 공간에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기게 된다.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자주 환기시키고 휴식의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잠면지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인 소파나 가구는 가능한 한 치우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섬유로 된 담요나 옷은 섬세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내에 있는 화분은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비염과 출농증은 성장장애 원

## 우리 '문화마실' 떠나볼까요?

## 환절기엔 조심할 것 투성이

을 못해 질병을 더 앓기 쉽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감기는 90% 이상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기 증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출농증, 중이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관지 천식 역시 일교차가 크고 차

고 건조한 기후에는 기도 수축이 빈번해 발작을 쉽게 일으킬 위험이 있다. 감기 및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과로를 피하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하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집안의 온도는 20도, 습도는 50~60%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천식에 좋은 음식으로는 잎이나 배, 연근, 도라지 등이 특히 좋으며 호도, 은행 등도 수시로 먹는 것이 좋다.

일교차가 심하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집먼지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

인질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코에 이상이 생기면 미각에도 이상이 생겨 입맛이 떨어져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되고, 코 점막이 부어 있으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어 되므로 구강 호흡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비염이나 출농증 환자의 경우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므로 뇌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성장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는 것이다. 봄에는 갑자기 자외선 지수

가 높아져 피부의 수분을 뺏어앗아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각질층의 탈락이 잘 되지 않고 불철 황사가 피부 각질층에 쌓여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불철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동시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잦은 목욕이나 때 수건 사용을 피하며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박달나무한의원>

본의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의 대재앙을 가까이서 접한 우리들로선 자연이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사실에 커다란 행복을 느낀다.

이 봄, '자연마실'이 주는 행복감은 크다. 그러나 광주에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자연 뜻지 않게 '문화와 예술'이 주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몸에

느껴야 한다.

문화동네에도 벌써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상상강좌가 그 중의 하나다. 지난 2월 김명곤 전주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상상강좌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밀도 높게 풀어내 많은 이들의 기쁨을 쳐다. 이번 데뷔 무대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다. 또 광주피아노단도 아가데미, 광주피아노협회는 28일, 31일 광주문화예술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작업도 한창이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 개발과 에든버러축제 참가

를 위한 공연 준비 등이 그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잘 엮어내 향기로운 문화예술의 꽃을 퍼뜨려 내려는 문화예술 일꾼들의 활약이 분주하다.

어디 그뿐이라,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진피해가 극심한 일본 섬다이시를 돋기 위한 행사도 문화예술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진 피해 난민을 돋기 위한 아트마켓'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 섬다이시 돋기 자선 음악회' 개최도 서두르고 있다. 광주립교향악단 신임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취임 연주회(4월 1일 광주문화예술 대극장)가 예정돼 클래식 애호가들을 벌써부터 들뜨게 하고 있다.

이번 판전은 과거와 독도는 일왕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와 독도 같은 사안은 한·일 외교관계에서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번 일본 대지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협력과 우정을 기록으로 새 교과서들은 모처럼 조성된 우호적인 대일(對日)분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 주변 여건을 감안, 발표 시점을 연기하거나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책을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일본 대참사에서 보여준 한국과 일본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도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용서는 안했으면서 역사를 막각하는' 바보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김

장훈의 판전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시설

## 신음하는 광주 푸른길 공원 '치유' 급하다

'도시공원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았던 광주 푸른길공원이 죽어가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시민의식 실종에 대한 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실해 평범한 도심 길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푸른길공원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조성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광주역 주변~남구 동성동 인근까지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담배꽁초는 물론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부터 쓰레기봉투까지 마구 버려 봄살을 끊고 있다.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는 것도 푸른길이 망가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북구, 동구, 남구 등 푸른길이 속해 있는 3개 자치구가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자치구마다 경쟁적으로 운동기구, 예술작품 등을 설치해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반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벽화가 파손되거나 운동기구들이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다면 단체급식 중간 납품업자들이 '박스 바꿔치기' 등을 통해 '일반'을 '친환경'으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둔갑 농산물을 대부분 생산농가가 불분명해 안전성마저 담보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유전자변형이나 값싼 수입 농산물일 경우 학생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둔갑은 유기농 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들어간 혈세로 부정 중간상 배반 블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지난 2004년 전남도가 학생들의 안전한 식단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거의 모든 자치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각 자치체는 이를 위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된 농산물을 사용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기 농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급식의 현장에서는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저농약 농산물이 무농약 또는 유기농산물로 둔갑해 부정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

았다. 자치구에 따라 서로 다르다. 나무데크나 벤치는 곳곳에 넘쳐나지만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푸른길은 국내외에 그 사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조성과정은 모범이 됐으나 그 후 관리·운영은 낙제점이란 얘기다.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에만 치중할 뿐 소중한 도심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렇다고 광주의 대표자원이자 시민 건강의 보루인 푸른길공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원 조성 초기 나무 심기, 청소 등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 다시금 되살아나야 한다. 또한 관리체계를 규정이 아닌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일원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용만 하고 가꾸지 못한다면 광주시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일반 농산물 친환경 둔갑은 유기농 가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들어간 혈세로 부정 중간상 배반 블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학교 급식 납품들은 생산농가와 계약제를 하거나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생산·수송·공급 등의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생산자 하위 표시와 부정 유통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친환경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해 학교 급식에서 부정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

야 할 것이다.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둔갑은 유기농 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들어간 혈세로 부정 중간상 배반 블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